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6.02.04, 한-EU연구협력센터>

○ 중·미 패권속, EU-인도 협정, 양국 간 기술 정책 공조 강화(1.29)

- 중국·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유럽-인도 간 이동(brain circulation) 확대를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양측은 EU-인도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핵심 신흥 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혁신허브 설립 예정, 인도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도 논의중
- ※ 글로벌 역량 센터를 통한 EU-인도 간 연구개발 협력은 과거의 비용 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최첨단 기업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Choose Europe for Science: 글로벌 연구 인재 유치(1.30)

- 현재 유럽 전역에 101개의 재정·제도적 인재유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2025년 5월 출범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하의 EU 차원 기회들을 보완
- 이로 인해 유럽 연구 기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 제3국 연구자의 ERC Advanced 그랜트 신청 건수는 약 4배(45→168), Starting 그랜트는 50% 이상(159→246), Consolidator 그랜트는 130%(50→115), 그리고 지난 1년간 MSCA 박사후 펠로우십 신청 역시 65% 증가
- ※ 한편 미국 연구자의 유럽행도 급증하여,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최근 공모에서 미국 기반 연구자들로부터 347건의 제안을 접수(이전 공모 대비 2배 이상 증가)

○ 집행위, EU 차원 최초 'EU 비자 전략' 채택(1.29)

- 집행위는 증가하는 국제 이동성, 지역 불안정성,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대응해 EU 차원 최초 'EU 비자 전략(EU Visa Strategy)'을 채택
- 학생·연구자·고숙련 인력에 대한 EU 규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스타트업·스케일업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EU 법적 체계를 모색. 유럽 법률 게이트웨이 사무소를 통해 고숙련 비EU 인력의 비자 절차를 지원, 관련 추가 EU 재정 지원 예정

- (기타) ▲유럽 핵융합 업계, 핵융합 산업화 본격 추진 촉구(1.29) ▲유럽 우주국(ESA) 사무총장, 유럽 우주 혁신에 '양자 도약' 필요 강조(1.29) ▲유럽투자은행(EIB), 2차 스케일업 펀딩 개시 예정(2.3)